

노반·건축 건설현장 직접감독 확대 시행

- 7개 시공현장에서 사업비 175억원 절감 예상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은)는 노반과 건축분야 철도시공현장에 책임감독을 두지 않고 공단 전문기술의 '직접 감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는 7개 건설현장에 대해 직접 감독을 추진해 사업비 175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본부는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20개 현장을 직접 감독하여 37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이 중 6개 현장은 완공되었고 14개 현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직접감독 계속 시행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를 중점 시행하고 전문성을 배양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사업관리 노하우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방치된 철도문화재를 살이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 연구원, 철도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활용 추진 -

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새로운 철도노선 건설이나 시설의 현대화로 방치되어온 철도자산 중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용역사:한국철도문화재단, 기간:18개월)을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74건의 문화유산을 발굴했다.

주요 철도문화재 중 1911~1914년 건설된 호남선 철도가 완성되면서 증기기관차의 급수를 위해 세워진 신흥리 급수탑은 화강암으로 축성되어 첨성대 모양을 하고 있으며, 100년이 지났지만 급수파이프를 제외한 외형이 온전히 보존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구 전라선 한벽굴의 경우 1931년 개통되었으며 한벽루, 전주천 뱃터와 더불어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곳으로, 최근 걷기 열풍으로 한옥마을을 둘러싸고 연계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변모했다.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기술은 보존 가치가 큰 철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가 가진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기법 이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 조성, ▲철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 일본, 영국 등의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 필요성,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114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철도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문화의 한 축이자 역사체험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흥리역 급수탑)



(구 전라선 한벽굴)

건설사업 참여 우수업체 11곳 선정

- 우수업체는 입찰참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연구원(원장 이동렬)은 동부건설(주) 등 11개 업체를 '2013년 철도 건설사업 참여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시공분야 우수업체로는 ▲토목시공(3개사) : 동부건설(주),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 ▲건축시공(1개사) : 동도건설(주) ▲전기시공(3개사) : 덕산정보통신(주), (주)보성엔지니어링, (주)전우사가 선정됐다.

설계분야는 ▲토목설계(3개사) : (주)순주엔지니어링,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일티 ▲건축설계(1개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오는 5월부터 공단 입찰 참가 시 가점(1점) 및 이사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연구원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5명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한 시공 강리 설계분야 7개 공사현장의 56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평가를 시행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참여업체 평가는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시공 품질 안전 환경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품질결함 및 안전사고가 없는 명품 철도시설물이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봄철 전국 철도건설현장 '비산먼지 특별관리'

- 철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연구원(원장 이동렬)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철도건설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3월 31일부터 5월 16일까지 7주간 전국 185개 노반·건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연구원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로의 세운세차 시설 정비, ▲현장별 토사야적장에 방진망 설치, ▲화물차량 적재에 방진덮개 설치여부 점검, ▲공사장 내 차량 제한속도(20km/h 이하) 준수, 작업차량 통행도로는 매일 1회 이상 물을 뿌려 먼지발생 방지 활동 등을 시행한다.

공단은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황사를 비롯한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철도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봄철 비산먼지 특별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철도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해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시험선구간(익산~정읍) 시설물 안전성시험 시행

- 고속차량 운행시험 전 안전성 검증 완료 -

기술본부(본부장 김성태)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간 시험선구간(37.8km)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4월 초 호남고속차량 운행시험 전인 26일부터 27일까지 이들 동안 시설물안전성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시설물안전성시험에서는 디젤기관차와 종합검측차를 속도 단계별(60km/h → 100km/h → 160km/h)로 운행하면서 선로 및 전차선로를 시공 상태를 정밀 검증했으며, 호남고속차량의 성능시험 전 시험선구간의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했다. 호남고속철도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이후에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철도시설 개량 공사 현장 일제 안전점검 시행

- 철도운행선 인접 현장의 근로자 안전 및 열차운행 지장여부 중점 점검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4월 2일부터 한 달간 열차 안전운행 및 철도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철도시설, 건물목 압축화 및 철도횡단시설 등 철도시설물 개량공사 현장 47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 현장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일반·고속철도가 운행 중인 열차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시설개량 공사 중, 열차안전운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A등급 18개 현장과 열차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B등급), 그 영향이 미미한(C등급) 현장 29개소이다.

(2014년 상반기 철도시설개량공사 점검대상)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A등급	18	5	2	3	8	0
B등급	22	4	4	3	6	5
C등급	7	2	1	1	1	2

본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현장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철도 안전운행 및 현장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청본부, 47개 철도건설현장 안전점검 완료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2월부터 3월 20일까지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및 포승~평택 철도건설 등 3개 건설사업 40개소와 철도운행선에서 시공하고 있는 7개소의 시설물 개량사업 구간 등 총 4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는 외부 기관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및 코레일의 전문가 13명이 참여했으며, 해빙기 지반 인화 등 계절적인 취약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큰 일교차로 인한 휴면여러 방지 교육과 현장 근로자 지도를 시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열차운행선에 인접되어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물의 변형여부 확인, ▲안전운행터 등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보완, ▲건설성비 운전원과 각종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근무 확인 등으로 각 공사현장별 위험요소를 찾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확보에 주력했다.

본부는 앞으로도 경부, 호남고속철도 등 전국의 철도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사업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56개소 철도인접공사 특별 안전관리 시행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는 관내 철도보호지구(궤도 끝선에서 30m 이내)와 인접하여 도로공사, 토지형질변경,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 등 특별 안전관리를 4월부터 시행한다.

본부는 '영동선 상성~이로역간 철도인접 국토확장' 등 5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점검을 시행하여 장마철 대비와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불안정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또 2014년 철도시설물 개량사업인 열차운행선 구간의 낙석방지시설, 하수시설, 옹벽설치 공사 등 18개소에 대해 4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상반기내 주요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 약 70억을 집중투자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함과 더불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 장대레일 설치 완료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3월 31일 오송에서 익산간 설치된 구간에 내린 후 이를 다시 용접하는 과정을 거쳐 77.7km 구간에 호남고속철도 장대레일 설치작업을 하나의 레일에 연결된다. 본부 관계자는 "장대레일 설치 완료로 KTX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위치한 시설정비사무소에서 300m 단위의 레일을 제작 전기 등 후속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시설물 점검 및 하고, 이를 전용화차로 현장에 운송하여 크레디트 레도가 시운전을 거쳐 연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대레일 설치 프로세스



①장대레일 용접 (오송시설정비사무소)



②장대레일 적재



③장대레일 운송 (전주화차)



④장대레일 설치



⑤장대레일 임시체결



⑥장대레일 현장용접 (1개의 레일로 연결)